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위드 코로나'

터키

'형제의 나라' 터키는 한국인에 호감도가 높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방역 완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현지 적응은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실외에서 마스크 벗은 터키

터키는 2021년 1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시작해 현재 2차 접종 완료율이 62.3%에 달할 정도로 코로나19 예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은 편이다. 인구의 절반이 넘는 접종률을 반영해 터키 정부도 지난 3월부터 '위드 코로나' 전환을 공식 발표하며 코로나19 방역 완화 조치를 시작했다.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폐지, 환기가 잘되고 사회적 거리가 보장되는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폐지 등이 가장 큰 변화다. 물론 극장, 공연장, 대중교통, 병원 등에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다.

확진 시 7일 격리, 비용은 본인 부담

여행 도중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터키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격리 장소를 따로 운영하고 있다. 여행객의 경우 최종 숙박한 호텔이나 터키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격리하면 된다. 이때 호텔이든 터키 정부 지정 시설이든 격리에 따른 비용은 전액 여행객이 부담한다. 호텔 예약 시 확진자를 위한 방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면 여행에 도움이 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기간은 확진 일자를 포함해 7일이다. 이상 증상이 없을 경우 격리 8일 차부터 격리가 자동 해제되기 때문에 PCR 재검사는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 격리 5일 차부터 PCR 검사를 할 수 있고, 음성 결과를 받으면 격리가 해제된다. 방문이 가능한 병원은 주 터키 대한민국대사관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백신접종 증명서 내면 격리 없이 여행

터키의 입국 규정은 까다롭지 않다. 터키 정부는 한국을 안전 국가로 분류, 한국인은 최소 14일 전 백신접종을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영문 백신접종 증명서, 최근 6개월 내 코로나19 완치자임을 증명하는 코로나19 회복증명서, 최대 72시간 이전에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 48시간 전 검사를 완료한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중 하나를 제출하면 자가격리 없이 터키 입국이 가능하다. 한국 귀국 시에도 백신접종 완료자의 경우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